

토마스 아킴피스의 영성

신 경건운동의 영성

김영한*

목 차

머리말

1. 토마스 아킴피스의 생애
2. 신 경건운동(Devotio Moderna)
3. 신 경건운동의 특징
4. 신 경건운동의 영적 형성
5. 대표적인 신 경건주의 운동의 서적 - [그리스도를 본받아]
6. 아킴피스의 영성
7. 비판적 고찰

맺음말

머리말

중세후기란 13-15세기에 이르는 종교개혁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대에 세속군주들이 수도원이나 제도권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교권이나 수도원장은 정치권력에 의존해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와 수도원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부세계의 혼란 와중에서 하나님은 고귀한 영혼들을 일깨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태리 시에나의 성 캐더린, 독일의 헨리 수소(Henry Suso)와 삭소니의 루돌프, 프랑스의 장 샤를르에 드 제르송, 화란의 게르하르트 그로트 등이 주도한

* 본교 기독교학 대학원장

“신 경건운동”(Devotio Moderna)이었다.¹⁾ 토마스 아킴피스도 신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 중의 하나였다. 후기 중세시대는 영성의 꽃이 핀 시대였다. 이 영성의 꽃이 종교개혁의 전주곡이 되었다.

1. 토마스 아킴피스의 생애

토마스 아킴피스(Thomas à Kempis, 1379-1471)는 1379년 켐펜(Kempen)에서 존과 겔트루데 헤멜켄(Haemerken)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였고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다. 토마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영하는 학교에 다녔던 것 같다. 1392년 13살된 토마스는 화란의 데벤테르(Deventer)에 위치한 공동생활 형제단(The Brothers of the Common Life)에 가입한다. 이 공동체는 게르하르트 그로트(Gerhard Groot)가 처음 설립해서 1376년 그레고리 11세의 인준을 받았고 당시는 라데윈(Florentius Radewyn)이 지도하고 있었다. 이 공동체에서는 라틴어 연구, 책의 필사, 책의 삽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토마스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기를 갈망했고, 도서와 명상의 조용한 생활을 원했다. 토마스는 신 경건운동의 형제공동체의 영향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곳에 와서 7년을 보낸 후 수도생활에만 몰입하기를 결심한다. 당시 그의 형 요한은 아그네텐베르그(Agnietenberg)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있었다. 당시 규칙에 의하면 형제가 같은 수도원에 머무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의 훌륭한 성품이 인정되어 함께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다. 토마스는 1406-7년 3가지 종교서약을 발표했다. 그것은 가난, 청결, 순종이었다. 1413년에는 33세의 나이로 사제의 직분을 부여받았다. 1425년 그는 아그네텐베르그 수도원의 부원장에 임명되어 신입 수도자를 지도하는 일과 저술과 필사에 전념했다.

토마스가 살던 시대는 중세말기로서 세상은 어지러웠다. 황제 필립공과 교황 보네페스 8세는 사이가 좋지 못했고 백성들은 교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서로 자칭 교황이라고 자처하는 2-3명의 교황 가운데서 진정한 베드로 후계자를 찾아야 했다. 수도원이나 수녀원도 내부적인 불화로 분열되었다. 1422년 종교적인 격동은 토마스의 눈 앞에 다가왔다. 당시 우트레히트 교구에 있는 교회 참사회원들은 사망한 드레드릭 공을 계승하여 대주교의 자리에 디폴트의 루돌프를 지명하였

1) Harold C Gardiner, preface to the Imitation of Christ, 박명곤 역, 그리스도를 본받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7쪽

다. 그러나 교황 마르틴 5세는 루돌프가 배운 것이 없고 거의 저능아에 가까울 정도로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들의 지명을 무시하고 쿨렌보그(Culenburg)의 소이더(Seuder)를 임명했다. 그러나 교구의 시민들은 루돌프를 원했으며 소이더를 맞이하는 것을 거절했다. 교황은 그 교구를 파문에 처했으므로 영성체나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와 성찬식이 교황에게 복종할 때까지 금지되었다. 우트레히트 시민들은 마침내 그 교구에 속한 성직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례를 베풀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했다.

토마스가 속한 수도회는 교황에게 불복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명을 택하여 1429년 하링겐 부근의 루넨케르크(Lunenkerk)의 수도원으로 옮겨갔다. 토마스의 형인 존은 건강이 나빠졌으며 더욱이 망명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3년후에 별세했다. 토마스는 그가 15년이나 그의 선배이자 상관으로 모시고 지냈던 친형의 죽음을 통하여 당시의 종교적 무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저서는 이러한 그의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토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론적인 영적 교훈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 토마스는 그후 이 수도원에서 여러가지 다른 직분을 부여 받았으며 1448년에는 두번째로 부원장의 자리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후 20년동안 그는 학생이자 상담자, 필사자 및 저자로서 매우 조용한 생활을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외에도 설교집, 수도사와 초신자의 훈육을 위한 글들, 라테윈(Florentius Radewyn)과 게르하르트 그로트(Gerhard Groot)의 전기 등을 포함한 많은 훌륭한 작품을 저술했다. 그의 저술 중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10 정도의 분량이다. 그는 나이 98세로 종교생활 63년제, 수도생활 58년제 되는 해 1471년에 별세했다.²⁾

2. 신 경건운동(Devotio Moderna)

중세 5세기-15세기 사이의 천년을 암흑기라고 한다. 특히 9세기 초와 11세기 초까지의 150년간을 암흑기라고 한다. 이 시대에 수도원은 크게 타락하였다. 제도 교회와 수도원은 정치권력과 결탁했으며 성직매매와 성직자의 축첩 등이 발생했다. 여기서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탁발수도회이었다.

2) Harold C Gardner, Preface to the Imitation of Christ, 박명곤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30쪽

탁발수도회의 핵심사상은 수도원이 폐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수도원은 閉鎖수도원이었다. 그러나 탁발수도원이 생긴이래 수도원은 在俗수도회와 폐쇄수도원 두가지로 나타난다 탁발수도회는 재속 수도회가 된다 수도원에 거하면서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수도회 형식이다³⁾ 오늘날의 수도회는 거의 모두 재속수도회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멜수도회 등은 여전히 폐쇄수도원으로 남아있다

탁발수도회는 부패한 중세사회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갱신운동을 일으키고 큰 도전을 주었다. 그러나 스콜라주의가 중세사회에 도입되면서 탁발수도회는 지성주의를 수용하고 제도권 교회에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했다. 스콜라주의는 존 스코투스(John Scotus)를 중심으로 해서 14세기 중반 절정에 도달했다. 교회의 예식은 영적 감화 없이 반복되었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 당시 교회는 성례전의 반복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화란의 게르하르트 그로트(Gerhard Groot, 1340-1384)였다.⁴⁾ 그는 자기 목회지 데벤테르(Deventer)에서 자기의 집을 공동생활 자매단(Sisters of the Common Life)의 숙소로 제공하고 회개와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건운동을 일으켰다.⁵⁾ 그는 상당한 대학교육을 받았으며 성공적인 성직수행을 하였다. 그는 35세 때 새로운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은거하면서 참회와 독서를 통한 영성각성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당시의 성직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각성과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신분을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므로써 사도적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신 경건”이란 이름은 이들 새로운 경건운동이 당시의 주된 흐름인 율법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배제한 새로운 체제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부여받은 냉소적인 이름이다.

그로트는 자기의 제자 12인을 택하여 개혁운동을 준비하던중 1384년 흑사병에 별세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에게 준 감화력은 대단하여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그의 유언에 따라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⁶⁾

3) Bradley P Holt, *Thursty for God.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역, 은성, 1996, 115

4) Bradley P Holt, *op cit*, p 115

5) 홍치모, “토마스 아켄퍼스의 배경 오늘의 헌신운동”,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추천서, 박명곤 역, 20쪽

6) Bradley P Holt, *op cit*, p 115

3. 신 경건운동의 특징

신 경건운동은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구성하거나 집단을 형성하지 않았다. 이 운동은 신비주의와 구별되면서 그 시대의 종교적 방종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경건생활을 심화 시키고 건전한 가르침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 운동은 데벤테르와 츠볼레(Zwolle)를 중심으로 한 형제단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사제들, 수도사,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신 경건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운동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세수도원들이 요구했던 수도 서약(청빈, 순결, 순종) 같은 공적 제재는 없었다. 이들은 폐쇄된 수도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 신 경건주의자들의 삶은 소박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탁발수도사처럼 걸식하는 삶의 방식을 살지는 않았다. 이들은 사도바울과 사막의 교부들을 따라서 스스로 일하며 자급자족하며 공동생활을 하였다. 남자들은 경건서적 등의 필사본을 만들었고 여자들은 옷감을 짜서 판 수입을 생활비로 지탱하였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3-4시 사이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시간까지 자유로운 기도와 독서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식사시간에는 일체 침묵을 지키는 것이 통례였다. 저녁때까지는 각기 맡은 일과에 전념하였다. 병자를 방문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어린 소년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특히 고전을 복사하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였다. 저녁식사 후 8시까지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8시 이후부터는 형제들을 찾아온 방문객은 돌아가야만 했다. 8시반이면 취침시간으로 그날의 일과는 모두 끝났다. 형제단에 가입하여 공동생활에 참가할 회원지망자는 1년간 건강과 정신력을 테스트하고 라틴어로 문장을 자유롭게 쓸 줄 알며 독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적격자로 인정받게 될 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정에 의하여 공동생활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게 될 때는 언제든지 이탈을 허락하였으나 그때엔 다시 가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신 경건운동의 생활방식은 평신도들이 경건생활과 수도생활을 함께 조화를 이루는 중간체제라는 입장에서 제3의 경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⁷⁾

둘째, 신 경건운동은 지역교회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갱신운동은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서 교회와 단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 경건주의 회원들은 지역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교리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겸손과 사랑과 단순한 생활과 도덕적인 실천에 강조점을 두었다.

셋째, 이 운동은 영성생활의 원천을 성경에 두었다. 이들은 성경을 묵상했다. 주일에는 숙소마

7) 유헤룡, "고대와 중세 시대의 영성", 기독교영성의 역사, 은성, 1997, 148쪽

다 집회를 열고 성경을 낭독한 후 성경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하였다.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고 몇시간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당시는 라틴어가 종교적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봉독과 미사집전은 라틴어로만 행했다. 신 경건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평민계층과 농촌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서 신 경건운동의 창시자인 게르하르트 그로트(Gerhard Groot)는 성경이나 예전서나 경건서적을 지방어로 번역하는 일에 투신했다. 그것은 당시 금지된 일이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였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이 성경과 예전서와 경건서적을 읽음으로써 경건생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경건에 유익이 되는 성경구절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다. 주일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도 초대하여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경건생활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였다.

넷째, 이 운동은 서약을 요구하는 규율은 없었지만 공동체 정신을 특별히 강조했다.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는 생활방식으로서 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허물을 기꺼이 다른 형제들에게 드러내어 고백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충고와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훈련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의 덕을 쌓아갔다. 이들은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낮에는 힘써 노동하여 전 수입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 더 나아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궁극 목표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타당한 방법이 세속에 감염되지 않은 청소년을 교육하여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영적 형성이었다. 신 경건운동가들은 부유한 상류층이나 지식계급들을 꺼렸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활방식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쉽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 경건운동은 어느 정도 반 성직주의와 반 지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세의 학교교육은 스콜라주의에 영향을 받아 지적 형성(intellectual formation)을 중요시하고 영적 형성을 등한시 하였다. 따라서 신 경건주의자들은 스콜라적 사변을 거부하고 성경을 읽고 명상하면서 도덕적이고 영적 형성과 진보를 중요시하였다. 이들은 신앙의 진리는 지성적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체험되는 정서적 진리(affective truth)라고 믿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성적인 헌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고, 성경을 읽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진보와 영적 내면화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명상했다. 그리고 명상할 때는 역사적인 예수, 특히 고난받으신 예수에 깊은 애착심을 보였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임박한 죽음과 심판을 보고자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면적 헌신을 하고자 하였다.

4. 신 경건운동의 영적 형성

신 경건운동은 중세교회가 경건을 외적 행위로 정의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경건은 내적 태도, 즉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강조한 운동이었다. 신 경건운동은 내면화와 결단과 도덕적 진보를 강조했다.

신 경건운동의 영적 순례는 영적 회심(spiritual conversion)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영적 회심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환희보다는 주님께로 향하는 의지적 결단의 순간을 말한다. 회심으로부터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훈련이다. 그것은 “영적 훈련(spiritual training)이다. 영적 훈련이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이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다. 이 영성훈련의 가까운 목표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성취하는 것이다.

덕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외면적 표시라기보다는 내면적 태도의 변화이다. 영적인 헌신이란 외면적 행위의 표시라기보다는 영혼과 마음의 변화된 태도이다. 신 경건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영적 마음의 태도는 내면적 고요함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과 열심이 수반되는 태도이다. 영성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청결(purity of heart)이다. 마음의 청결은 초대교부의 전통이다. 초대교부들은 성경을 단순한 눈으로 보았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수의 산상수훈처럼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 신 경건운동은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데 모토를 두고 영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아에 대한 지식과 자기부인 그리고 세상을 멸시하는 태도를 요구하였다. 토마스는 이 운동을 지도한 6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였다.⁸⁾

신 경건운동은 두가지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주류적인 흐름으로서 데벤데르와 츠볼레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는 그로트와 셀레(John Celle), 라데윈(Radewyn)와 츠볼레(Zwolle)가 중심이 되어 원시기독교로의 복귀운동과 고전연구와 보급 및 헌신적인 교육사업을 하였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은 빈데스하임의 공동체(The Congregation of Windesheim)였다⁹⁾ 이 공동체는 그로트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다른 갈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정적 상태에서 신과 직통한다는 실천적 신비주의의 경향을 지닌 자들이었다. 이 공동체는 “빈데스하임의 어거스틴의 규범체”(The Augustinian Canons Regular of the Congregation of Windesheim)라고 불렸고¹⁰⁾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정신과 규칙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準수도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빈데스하임의

8) Bradley P Holt, op cit, p 116.

9) Bradley P Holt, op cit, p 115.

10)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민경배 외 역, 세계기독교사, 기독교서회, 210쪽.

공동체 형제들은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나 타울러(John Tauler)의 신비적 요소가 농후했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가 토마스 아킴피스였다.¹¹⁾ 이들 회원들은 가난, 독신, 순종을 실천했으나 공식적인 서원은 하지 않았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생활과 매우 흡사했다.¹²⁾

신 경건운동은 공 교육(public education)의 폭넓은 갱신을 창안하고 15세기와 16세기의 거의 모든 휴머니스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중세적 수도원주의를 극단적으로 깨뜨린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평가된다. 이 운동의 "현대성"(modernity)이란 평신도 성격, 비타협, 현대적 개인주의, 종교헌신에서의 외형거부, 교회로부터의 소위, 매이는 서원의 거부 등이다.¹³⁾ 신 경건운동은 종교개혁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칼빈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 경건운동은 종교개혁의 전야제라고 부른다.¹⁴⁾

5. 대표적인 신 경건운동의 서적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 경건운동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킴피스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 Christi*)라는 경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저서는 14세기 후반과 15세기에 대중적으로 한 영적 지침의 장르에 속했고 기독교 영성고전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저서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모방 이상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적 삶의 패턴에 대해 본래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¹⁵⁾ 이 저서는 본래 수도사들을 위해 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신도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읽혀졌다. 이 저서는 서방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건서이다. 1500년 이전에 이미 50판이 나왔고 아직도 750개의 필사본이 있으며, 현재까지 300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은 상당한 기간동안 익명으로 읽혀져 오다가 1460년에 나온 번역본에서 아킴피스의 토마스(Thomas of Kempis)라는 이름이 언급됨으로써 그후로부터 그의 저서로서 알려졌다.

11) 홍치모, 상계서, 23-4쪽

12) Bradley P Holt, *op cit.*, p 115

13) Otto Gründler, "Devotio Moderna", in Jill Rutt (Ed), *Christian Spirituality II.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SCM Press, 1988, p 179

14) 유혜룡, "중세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은성, 1997, 154쪽

15) E. J Tinsley, "Thomas à Kempis", in Gordon S Wakefield(ed),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SCM Press, 1996, p 378

토마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가 영향을 받은 신 경건운동의 형제자매 공동체에서 되어진 가르침과 잠언들이 기초가 되어 경건생활을 조직화한 저서이다. 이 저서는 신 경건운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저서는 수도사들을 위하여 쓰여졌으나¹⁶⁾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수도사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모든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의 애독서가 되었다.

이 저서는 전 4권으로 되어 있으며 영성형성의 패턴인 정화-조명-연합 도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저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제 1권은 “영적 생활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다. 1권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요 8장 12절)으로 시작한다.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흑암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1권에서는 신앙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세상적인 헛된 지식을 경멸하고 마음의 통회를 이루어 내적 평화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지식이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불명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과도한 지식욕은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 욕구는 불안과 속임을 가져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모든 교훈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치있는 교훈이다. 학문에 대한 오랜 연구보다도 겸손한 자기지식이 하나님께 이르는 더욱 안전한 길이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읽었는가에 의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에 의하여 공적을 인정받는다. 만일 사람이 겸손해지기보다는 위대해지기를 택했다면 그는 자기자신의 자만 속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시험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수련으로부터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허영을 제어하고 진리를 향하여 다가서야 한다. 모범적인 삶은 명상하는 삶이다. 침묵과 정적 속에서 경건한 영혼은 정진할 수 있다. 회개의 定義를 아는 것보다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죄를 억제하지는 못하나 지옥의 두려움이 죄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정화를 위해서 금욕생활과 수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정화의 단계이다.

제2권은 “내적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내적 삶으로의 부름을 다룬다. 모든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은 영혼 속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함으로써 내면화시

16) Harold C. Gardiner, 상계서, 37

킨다. 외적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서 자기자신을 성찰하고 명상한다. 그리하여 내면적인 삶으로 들어선다. 내적 삶을 계발하는 데에는 단순성과 순결성이 중요하다. 단순성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에게 나가고, 순결성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과 연합을 갈망한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자기자신에게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면적인 친밀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참된 내면적 위로를 경험한다. 마음의 큰 안정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외적인 칭찬이나 비난에 의해서도 교란당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위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내적 위로를 얻는 방법은 스스로의 선행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으로 자기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조명의 단계이다.

제3권은 “내적 위로에 대하여” 다룬다. 제1권이 능동적인 정화의 훈련을 보여주고 제2권이 능동적인 내적인 성찰과 훈련에 관심을 보여 주는 데 반해서 제 3권에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맛보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적 위로를 얻는 데는 사랑이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다. 여기서도 겸손이 중요하다. 헛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학식보다도 겸손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도 순종이 중요하다.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은혜에 의해서는 가능하므로 순종은 필요하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해야 한다. 다음 네가지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적게 소유하는 것, 자신을 남보다 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부정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내적인 삶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인간은 아무 선도 행할 수 없기에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연합의 단계이다.

제4권은 “성만찬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는데서 시작된다. 이 성만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하는 일은 경건생활의 준비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만찬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절정이다.

이 저서에서 토마스는 플라톤 사상처럼 육체 혐오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는 수도사들이 육체를 비천하게 여기고 경멸하게 보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영혼과 비교해 보면 진실로 가치는 적다고 가르친다. 토마스는 반지성주의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이들 신경전운동의 수도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문법, 작문, 읽기를 가르쳤다. 이 학교는 매우 번창했고 에라스무스같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¹⁷⁾ 그는 사실상 인간이 지닌 지식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가치한 지식을 얻으려는 학문을 무익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는 것보다는 행함을 강조하였다. 단지 양심의 가책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보다는 내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6. 아킴피스의 영성

첫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다. 그리스도의 모방이란 신 경건운동의 핵심단어이다.¹⁸⁾ 모방에는 적절한 태도, 정서, 자각의 내적인 모방과 행위와 몸짓의 외적인 모방이 있다. 내적 모방은 겸손, 자아죽임, 이웃사랑이며, 외적 모방은 순종, 가난, 봉사로서 양자는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¹⁹⁾ 그리스도는 인간성의 완전한 모범이다.²⁰⁾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죄를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된다”.²¹⁾ 여기서 아킴피스는 경건이 뒷받침된 지식과 삶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 아킴피스는 “당신 안에 제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위대한 사람이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다”.²²⁾

17) Harold C Gardiner, 상계서, 38쪽

18) Otto Grundler, “Devatio Moderna”, in. Jill Rarrt (Ed), Christian Spirituality II.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SCM Press, 1988, p. 191

19) 상동

20) ibid, p 183.

21) Thomas à Kempis, Imitation of Christ (New York. Doubleday & Co., 1955), 박명곤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권 1장.

22) 상계서, 1권 3장 14절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는 “죽음이나 벌,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²³⁾ 토마스는 다음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결한 마음과 단순한 의도를 가질 것을 권면한다: “철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이 없어지고 하얗게 빛나는 철이 되듯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녹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²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란 “겸손하고 화평한 사람”, “경건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²⁵⁾ “마음의 그릇된 자유와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받는데 장애가 된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이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수반하나 왕도이다. 이미 다가온 역경과 고통으로부터 도피할 다른 길은 없다. “도피한다 하더라도 어디가든지 고난과 고통은 너를 따를 것이다”.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다.

“십자가의 시련과 역경을 참고 견디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다”.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된다.²⁶⁾

둘째, 자기가 보잘 것 없고 미천한 존재임을 아는 겸손한 영성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높은 마음을 품어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오”.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유익한 배움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공손하게 대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지름길이다”.²⁷⁾ 이 세상에서 그토록 위대해지기를 원했던 자들이 그들의 헛된 지식과 더불어 공중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지 않는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할 줄 아는 지식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타자를 자기보다 높이는 일은 해로운 일이 되지 않으나 자신을 타자보다 더 높일 때에는 훨씬 해로운 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관용해야 한다. “너 자신에게도 결함이 많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인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²⁸⁾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23) 상계서 1권 24장

24) 상계서, 2권 4장

25) 상계서, 2권 8장

26) 상계서, 2권 12장

27) 상계서, 1권 2장

28) 상계서, 1권 16장

헛되다”(잠25:27). 토마스는 말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다고 여기지 마시오”, “당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항상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함께 있다”.²⁹⁾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지녀라”.³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영적 생활의 진보란 있을 수 없다”. “환난 중에서도라도 겸손한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³¹⁾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평화는 겸손한 인내에서 얻을 수 있다. 자기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자이다.³²⁾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육신이 있는 한 쉬지 않고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에 우리는 쉬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³³⁾ “당신 자신은 항상 낮은 자리에 두도록 하시오(눅14:10). 그리하면 가장 높은 자리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모든 행실의 근본을 하나님 안에 두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³⁴⁾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겸허의 모델이다.³⁵⁾

셋째, 행함과 실천의 영성이다. 토마스는 말한다. “심판날에는 무엇을 읽었는가 또는 훌륭한 열변을 토했는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는가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³⁶⁾ 시험이나 유혹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그것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사람은 겸손하여 지고 깨끗이 정화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³⁷⁾ 시험과 유혹은 겸손과 인내로써 물리쳐야 한다.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와 겸손한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신앙생활에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진다”.³⁸⁾ 이 세상에서 삶의 종말은 빨리 온다. 죽음을 묵상하고 오늘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음에 대하여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9) 상계서, 1권 7장

30) 상계서, 1권 22장

31) 상계서, 2권 2장

32) 상계서, 2권 3장

33) 상계서, 2권 9장

34) 상계서, 2권 10장

35) Otto Grundler, op cit, p 183

36) Thomas à Kempis, op cit, 1권 3장

37) 상계서, 1권 13장

38) 상계서, 1권 13장

“죽음을 맞이 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³⁹⁾

넷째, 순종의 영성이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깊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겸손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⁴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은 허물이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회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로만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⁴¹⁾ “너 자신에게 엄격하면 할수록 너의 영적 생활은 진보할 것이다.”⁴²⁾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살피고 주의 깊게 실천하는 자가 내면적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⁴³⁾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증거이다. 이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위대한 순수성의 표시요, 내면적인 신앙의 증거이다.”⁴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했을 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사고이다.”⁴⁵⁾

다섯째, 침묵과 고독과 회개의 영성이다. 아킴피스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내적 평화와 영적 진보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인간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영적 생활을 향유하게 된다.”⁴⁶⁾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 보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헛되고 쓸데없는 일이나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는 것은 유익하고 가치있는 일이다.”⁴⁷⁾ 아킴피스는

39) 상계서, 1권 23장

40) 상계서, 1권 9장

41) 상계서, 1권 21장

42) 상계서, 1권 25장

43) 상계서, 2권 5장

44) 상계서, 2권 6장

45) 상계서, 2권 11장

46) 상계서, 1권 11장

47) 상계서, 1권 14장

교부들의 모범을 본받을 것을 권면한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영적 성숙과 진보를 위하여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은혜와 미덕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웠다”.⁴⁸⁾ 영적 성장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마스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이여, 저의 선한 결심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이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여태까지 제가 한 일은 무(無)와 같습니다.”⁴⁹⁾ 읽고, 쓰고, 기도하고, 명상하며,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식욕을 절제하며, 게으르거나 태만한 것을 피하는 신체적 훈련을 하는 것이다.

토마스는 불필요한 잡담은 피하고 목적없는 방문은 피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권면한다. “떨 수 있는 한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하고 고독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라”. “기꺼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외부에 나가 대중들 앞에서도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된다(전 3:7). 또한 기꺼이 복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바르고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지나친 자기 과신의 위험에 빠져들기 쉽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를 바깥 세상에서 떠들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무겁게 가책을 받은 양심과 상하고 찢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한다”. 세상은 항상 흘러가고 욕망과 소유도 지나간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조용한 방에 들어가 세상의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경건한 영혼은 유익을 입으며 자라나며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 “매일 밤 자신에 대한 회개로 눈물의 홍수를 이루고 자신을 정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기도와 명상의 골방에서 신자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다.”⁵⁰⁾

여섯째, 이성보다는 신앙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성이다. 토마스와의 신 경건운동은 12세기의 훌륭한 영성과는 달리 지적 생활에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 참된 지식이란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화시키는 것, 알려지는 자와 아는 자의 연합에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⁵¹⁾ 토마스는 다음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겸손이 부족하여 성삼위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이론적으로만 삼위일체의 고귀하고 신비한 교리를 논하는 것이

48) 상계서, 1권 18장

49) 상계서, 1권 19장

50) 상계서, 1권 20장

51) Bradley P Holt, op cit., p 116

무슨 소용있는가.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것은 사람을 의롭거나 성스럽게 만들지 못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⁵²⁾

수도사나 신자는 삶에 있어서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잠 16.9) 이것은 “사람의 운명과 길 또한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⁵³⁾

토마스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도 쓸데 없고 무익한 질문은 그릇된 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신비를 캐어 내려고 애쓰는 동안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경건이요, 높은 지성이나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알아내려는 호기심이 아니다”. 인간은 땅 위에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에 관하여 사변을 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은 연약하고 속임을 받기 쉬우나, 참된 신앙은 속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이성과 자연의 탐구는 신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신앙보다 앞서거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인간이성은 천지간에 어디서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⁵⁴⁾

7. 비판적 성찰

토마스의 명상록은 우리에게 내적이고 영적 삶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의 역할을 해주지만 현세에서 도피하고 무정념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스토아적 철학의 잔재가 밑에 깔려 있다.⁵⁵⁾

첫째, 세상적 삶에 대한 부정적 피력이다. 이 세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게 될 때 현재의 세상은 그에게 슬픔과 쓰라림이 될 것이다, 선한

52) Thomas à Kempis, 상계서, 1권 1장

53) 상계서, 1권 19장

54) 상계서, 4권 18장

55) E. J. Tinsley, “Thomas à Kempis”, in Gordon S. Wakefield(ed),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SCM Press, 1996, p. 378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 언제나 슬퍼하고 괴로워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⁵⁶⁾ “이 세상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삶은 그에게 더욱 더 괴로운 것이 될 것이다”. 토마스는 먹고 마시고 깨고 일하고 쉬는 등 자연의 필요와 본능적인 욕구에 의하여 산다는 것을 “커다란 고통이요 괴로움”으로 보고 있다.⁵⁷⁾ “이 땅 위에서는 세상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지내자”고 권면한다.⁵⁸⁾ 이러한 토마스의 견해는 성경적 견해가 아니라 스토아적 견해이다.

둘째,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토마스는 “하나님은 세상적인 교제와 친구들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말한다.⁵⁹⁾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모인 곳을 피하고 고독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명상을 추구하는 것을 권하며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는 전보다 작은 사람이 되어 돌아 오게 된다”는 표현은 공동체에서 고립된 삶이 마치 경건의 삶인 양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셋째, 현세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경건이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안식처가 없다”, “하늘만이 당신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⁶⁰⁾ 토마스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가 나그네요 순례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나 그의 강조점은 내면적인 삶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맺음말

토마스가 소속한 “신 경건운동”의 주도자들은 탁월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신앙심 뿐만 아니라 열정과 사랑에 있어서도 온전한 카톨릭교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형식적인 신앙이나 과도한 형식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 카톨릭 교도들이었다. 그의 저서에는 외형

56) Thomas à Kempis, 상계서, 1권 21장

57) 상계서, 1권 22장

58) 상계서, 1권 23장

59) 상계서, 1권 20장

60) 상계서, 2권 1장

적인 경건의 모양과 가식을 경계하는 경건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이 저서는 신자의 영적 생활을 심화시켜 주는데 훌륭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토마스 와 신경건운동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하여 마르틴 루터가 수행한 종교개혁의 길을 열고 있다. 그리고 신 경건운동이 주장한 신학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적절한 삶, 경건을 요구한다는 사상은 후대에 개신교 경건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참고문헌

- Thomas à Kempis, *Imitation of Christ* (New York: Doubleday & Co., 1955), 박명곤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E. J. Tinsley, "Thomas à Kempis", in: Gordon S. Wakefield(ed.),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SCM Press, 1996.
- Otto Grundler, "Devotio Moderna", in Jill Raitt (Ed.), *Christian Spirituality II: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SCM Press, 1988.
- Bradley P. Holt, *Thirsty for God.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역, 은성, 1996.
- Harold C Gardiner, preface to the *Imitation of Christ*, 박명곤 역, 그리스도를 본받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민경배 외 역, 세계기독교사, 기독교서회. 유해룡, "중세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은성, 1997.
- 한국개혁신학회, *21세기의 개혁신학*, 한들출판사, 1998.
- _____, *개혁신학의 현대적 조명*, 한들출판사, 1999.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창조적 목회와 성경 해석*,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 _____, *기독교 영성과 예배*,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I · II · III*,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Abstract

The spirituality of Thomas à Kempis

Kim, Yung Han

The late period of the middle age is called the period of pre-reformational age from the 13th century to the 15th century. The church power and monasterial head depended on the political power, because the secular lords controled the monastery and church. Therefore, the church and monastery was obliged to become corrupted. In the wave of chaos in the world God raised the new reform movement, awakening the great souls It was the new devotion movement. Thomas à Kempis was one among the leaders of the new devotion movement The period of the late middle age was the period in which the flower of the spirituality bloomed This flower of the spirituality became the prelude of Reformation.

The intention of this treatise is to investigate the spirituality thought of Thomas à Kempis, the leader of the new devotion movement in terms of the trait of new devotion movement which was its background, spiritual formation and the representing volume of the new devotion movement, the imitation of Christ and to search for the significance of his spirituality thought.

The spirituality of Thomas is characterized as the following six. Firstly, it is the spirituality to imitate Christ. Secondly, it is the humble spirituality to know he is the nothing but the finite being. Thirdly, it is the spirituality of action and practice. Fourthly, it is the spirituality of obedience. Fifthly, it is the spirituality of silence, solitude and repentance Sixthly, it is the spirituality to put the faith prior to the reason and trust God totally.

The critical remarks to the spirituality thought of Thomas is as follows. Firstly, it is the negative expression to the worldly life. Secondly, it gives stress on the individual piety too much rather than the community Thirdly, it is the piety to escape this world and to be oriented toward the next world.

As consequence, Thomas and the new devotion movement paved the way for the Reformation of Luther. The thought to seek the piety rather the knowledge gave th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protestant pietism later.